

Writing education at universities using local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Kwon, Tae-hyun

Assistant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blugrey@naver.com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examples of writing using local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conducted at universities and to explore ways to link them to writing education in the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ies of the secondary curriculum.

Methods As one of the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ctively encourages writing activities based on connection with other areas within the subject or other subject learning, comparison activities, or out-of-school writing activities.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this curriculum and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school field, this article proposed a writing teaching method using local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Conclusions Writing using local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is expected to help students increase their motivation for writing, recognizing that writing education is not limited to classroom instruction but an object that can be done in everyday life.

Keywords Local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creative writing, writing guidance and teaching methods.

<https://www.ijkculture.com>, DOI: doi.org/10.23159/IJKC.2024.12.312.004

Received: Nov. 20. 2024 ; Reviewed: Dec. 10. 2024 ; Accepted: Dec. 20. 2024

pISSN 2951-2808 eISSN 2951-2883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

권태현

목 차

1. 서론
2.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글쓰기 설계와 교수-학습 모형
3.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글쓰기 결과와 보완 방향
4. 중등학교 창의적 체험 활동과의 연계 방안
5. 마무리

1. 서론

이 글은 학생들의 직접적 수행이 강조되는 글쓰기 영역에서, 학생들의 글쓰기 수행을 평가하고 지도하는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지역 내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글쓰기 방안과 이에 의거한 교수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글쓰기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다양한 층위에서 개입하는 고부담의 인지 활동으로, 교수자와 학생 모두에게 어려운 과업이다. 이로 인해서 학령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의 글쓰기 동기는 떨어지고 교수자 역시 글쓰기 지도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¹ 따라서 글쓰기 교육을 위해서는 글쓰기의 접근과 과정, 교수-학습 과정 전반에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방안이 계속해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 하에 작문 교육에서는 쓰기 과제와 독자의 진정성(Authenticity)을 강조하고

* 이 글은 기존에 발표했던 필자의 논문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글쓰기 교육 방안'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1 권태현 (2014). 쓰기 성취기준에 따른 학생 예시문 선정에 관한 연구. 충북: 한국교원대 박사학위논문.

있다. 진정성이란 쓰기 맥락의 실제성을 강조하는 의미인데, 학생들이 쓰기 과정에서 진정한 쓰기 목적과 독자를 경험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쓰기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상적인 주제로 가상의 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글만으로는 글이 지닌 힘을 체험할 수 없으며, 글쓰기에 대한 필요나 흥미를 느끼기도 어렵다.²

따라서 쓰기를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진정한 쓰기 목적과 독자를 바탕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교수학습 환경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여기서 진정한 쓰기 목적이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나 학생들의 실제 삶의 맥락과 관련된 쓰기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의 삶의 토대인 지역 사회와 관련하여 글쓰기를 지도하는 것은 필자를 둘러싼 삶의 공간을 중심에 놓고 관찰과 경험에 기반한 글쓰기를 수행하는 것이어서 쓰기 주제로서의 실제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지역의 문화 및 역사 자원, 지역 현안 등을 화제로 삼아 주제 탐구형 수업을 계획하면 지역 문제와 관련한 학습의 과정에서 글을 쓰는 학습 작품으로서의 의의도 갖게 된다.

이러한 교육적 효과에 주목하여 2015 교육과정의 ‘쓰기 영역’에서는 교과 내 다른 영역이나 다른 교과 학습과의 연계, 비교과 활동이나 학교 밖 쓰기 활동과의 연계를 고려한 글쓰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또한 독서 영역에서는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글에 반영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된 가치 있는 글의 읽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³

이 글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글쓰기 지도 및 교수법이다.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글쓰기 지도 및 교수법은 각 지역에 산재한 근/현대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이에 근거를 두고 글쓰기의 방안을 마련하고 교수법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서울 중구 소재 D대학교에서는 현재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수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에 있는中等교육 과정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서울시 중구에 산재한 근/현대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글쓰기 수업이 가능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수업에서 진행했던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글쓰기의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이에 기반을 두어 中等교육 수준에 맞게 해당 글쓰기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글쓰기 지도 방안과 학생 참여 방안 등을 제시하기로 한다.

2 박영민 외 (2016). *작문교육론*. 서울: 역락.

3 교육부 (2015). 2015 국어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69-97.

이 글을 통해서 중등교육과 대학 글쓰기 교육의 연계, 글쓰기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대상이고, 글쓰기는 실제의 삶과 상호 소통하는 의미 구성의 방안이며, 무엇보다 학생들이 글쓰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글쓰기 설계와 교수-학습 모형

자신이 주거(住居)하는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歷史文化資源)을 교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2014년 7월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⁴ 이 법령이 제정됨으로써 지역에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마련되었고,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학습 활동이 운영되고 있다.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글쓰기’는 현재 서울 소재 D대학교 1학년 학생들의 교양 필수 과목에서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의 중구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서울의 대표적인 원도심의 하나였다. 이로 인해 이 지역에는 조선시대에 생긴 유적에서부터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던 근대 문화유산, 그리고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생긴 다양한 문화유산 및 미래문화유산이 공존하고 있다.⁵ 이 지역의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조선시대의 청계천을 중심으로 설립된 서화(書畵)와 출판사의 유적,⁶ 일제강점기 때 명동과 필동, 인현동 주변에 세워진 일본인이 만든 근대화 유적, 8.15 해방을 맞이하고 한국전쟁을 겪은 뒤에 지식인과 문인들이 명동, 충무로, 을지로 일대에 몰려들면서 생긴 다양한 극장, 다방과 같은 문화시설 등이 존재한다.⁷

학생들에게 글쓰기의 관심을 높이고, 학생들이 스스로 글쓰기 주제를 탐색하는 일련의 과정을 체득하게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지역 내에 적산가옥(敵産家屋)의 조사, 인현동을 중심

4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제12354호(2014.1.28 제정).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참조.

5 정두호·유춘동 (2020). 서울시 중구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도시 레트로(Retro)의 연계. 철학·사상·문화, 33. 109-119.

6 최완기 (1994). 조선시대 서울의 경제생활. 서울: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7 서울역사박물관편 (2012). 명동이야기.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으로 한 출판 산업단지의 재조명, 명동 복원 프로젝트와 같은 동네 유산의 재인식과 발굴, 중구 지역의 숨은 이야기 발굴 사업, 중구 토박이를 대상으로 한 세대 공감 인터뷰작업, 중구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축제와 체험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업의 취지와 운영에 맞는 수업의 설계와 진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1. 수업의 목표 및 학생들의 요구 분석

현재 수업은 전체 15주로 진행되는 과목이다. 그리고 이 과목은 운영상 모듈별 문제중심 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중심학습이란 “구성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실제적인 문제를 학습자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게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이다.⁸

이 수업은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는데 유효하다. 그리고 이 수업 방식을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 글쓰기의 전반적인 절차를 배우고, 지역 소재 역사문화자원을 탐색하는 작업을 통해 글쓰기의 참여도, 수업의 적극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 수업의 핵심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학생들 스스로 발굴하고, 글쓰기를 통해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수업에서 다루는 역사문화자원은 근대 시기 이전에 생산된 주요 문화유적, 문화재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생활사 자료, 문화사 자료, 근, 현대생활사 문화유적 전반을 아우른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글쓰기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소재 탐색, 주제 설정 등을 스스로 수행해 볼 수 있고, 학생들의 글쓰기 수업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글쓰기 과정에서의 과제 발굴 및 탐구 의욕의 고취, 글쓰기 능력의 신장을 가져올 수 있다.

교수자는 학생들의 글쓰기, 교과과정의 운영을 위해서 먼저 학습자의 요구 및 상황 분석이 필요하다. 교수자가 수업을 위해서 학습자에게 제시한 설문 상황은 (1) 수업의 참여 목적, (2) 글쓰기 능력의 자가 진단, (3) 지역에 대한 관심도, (4) 수업 방식에 대한 선호도였다. 이러한 내용의 결과를 <표 1>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 공하림 (2014). 대학 작문 교육에서의 문제중심학습(PBL) 적용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25. 7-42.

〈표 1〉 학습자 요구 및 상황 분석

번호	교수자의 설문 사항	학습자의 의견
1	수업의 참여 목적	글쓰기 능력의 향상을 위함(n=15) 지역 내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관심(n=10) 인문학적/융합적 사고에 대한 관심(n=5)
2	글쓰기 능력의 자가 진단	상(n=5), 중(n=22), 하(n=3)
3	지역에 대한 사전 관심도	상(n=5), 중(n=6), 하(n=19)
4	수업 방식에 대한 선호도	강의식 진행(n=5), 조별 모둠 활동(n=20), 기타(n=5)

(n=30)

학습자의 요구 및 상황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교수자의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원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 수업 목표를 학생들과 충분히 교감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학생들은 대부분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관심, 인문학적/융합적 사고에 대한 관심의 측면에서 이 수업을 선택했다. 그리고 자신의 글쓰기 실력을 상중하로 대략적으로 구분할 경우 중간 정도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또한 지역 내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관심은 많은 편이나 실제로 지역에 대한 사전 관심도나 이해도는 거의 없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은 수업이 교수자의 일방적인 강의로 진행되기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조별 모둠 활동을 통해서 운영되기를 희망했다. 이러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이 교과목의 운영 취지를 생각하여 주차별 강의 목표, 운영 설계 방안을 수립했다.

2.2. 수업의 주차별 목표 및 교수-학습 모형안

수업은 15주를 기준으로 주차별 강의 목표, 교수자의 강의, 학생들의 답사, 글쓰기 방안 등을 고려하여 수립했고, 모둠 활동의 경우에는 조별 편성을 통해서 PBL 방식 및 직접 답사로 운영되었다. 현재 글쓰기 수업은 한 반의 수강인원이 30명이기 때문에 5명씩 여섯 모둠을 만들었다.

전체 15주차 수업은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우선 1주차에서 2주차 수업은 계획하기 단계이다. 수업의 주 내용은 글쓰기 원론 및 일반론으로서 글쓰기의 전반적인 과정,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글쓰기의 방법론, 자료 수집 방법, 답사 활동에 대한 주요 내용, 답사 활동을 마친 뒤에 글쓰기의 절차와 방법론 등이다. 이 과정에서는 지역의 산재한 역사 문화자원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 요구된다. 학생들에게 PBL의 일반적인 절차를 포함하며,

글 집필을 위하여 모둠 협력 작업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했다. 1-2주차 수업을 통해서, 수강생들은 글쓰기의 절차, 글쓰기 대상에 대한 선별 능력, 연구 과제에 대한 탐색, 글쓰기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 계획을 체득할 수 있다.

둘째, 3주차부터 7주차까지의 수업은 모둠별로 지역을 세분화하여 원하는 **지역 내의 역사 문화자원을 조사하고 개관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작업은 학생들의 관심 영역을 사전에 조사하고, 실제 현장 답사에 앞선 준비 단계이다. 학생들은 조별로 기존에 소개된 지역 내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확인하고 발굴하면서, 자료 탐색, 중요 자료의 확인, 새로운 대상지의 선정, 대상 자료에 대한 글쓰기의 방법론을 모둠 활동과 개인 활동을 병행하면서 탐구하도록 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지역 내의 역사문화자원이 근대 시기 이전에 유명한 유물이나 유적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중구 지역에 산재해 있는 일제강점기의 적산가옥과 같은 근대 문화유산, 남대문과 남대문시장, 이 지역의 생활문화유산, 서울역 고가도로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확장하는 데 주력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PBL 방식의 조별 모둠 활동을 통해서 글쓰기의 전반적인 과정인 ‘계획하기-작성하기-수정하기’의 일반적인 글쓰기 과정은 물론 해당 과제에 대한 관련 지식과 주제 의식을 탐색 및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수업의 8주차부터 12주차까지는 실제 답사와 글쓰기가 진행되는 단계로서, 조별 모둠 활동에서 시행한 ‘**조별 답사 활동**’, ‘**답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글쓰기**’로 이어지는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의 내용은 수업 시간에 조사한 내용, 모둠 활동을 통해서 선정한 역사문화자원 및 탐사할 지역을 직접 답사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선정한 지역 내의 역사문화자원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모둠별 답사를 통해서 대상을 직접 관찰 및 확인할 수 있고, 관련 기록에 대한 자신만의 자료 수집, 이 과정에서 사진 촬영 및 스케치 작업 등을 진행한다. 팀별 모둠을 통해서 함께 지역을 답사했다더라도 개인의 관심에 따라 글은 달라진다. 따라서 글 작성하기에는 모둠 협력학습을 진행하면서, 개인에 따라 글쓰기를 진행하게 한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글쓰기 작성을 위한 1차 개요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작업은 수업 계획상에는 8주차에서 12주차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모둠별로 상황에 따라 답사가 가능한 시기를 선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진행했다.

넷째, 수업의 13주차에는 역사문화자원과 관련된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역 소재 역사문화 자원의 중요성, 학생들이 작성한 글에 대한 장점과 보완점, 피드백 등을 최종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은 모둠별로 상호검토, 수업 전체 검토, 전문가를 통한 심화 검토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완성도 있는 글을 쓸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팀별 모둠을 통해서 함께 지역을 답사했다라도 개인의 관심에 따라 글은 달라진다. 따라서 집필하기에는 모둠 협력학습을 진행하면서, 개인에 따라 글쓰기를 진행하게 한다.

다섯째, 수업의 마지막 14주에서 15주 기간에는 학생들이 개인별로 작성한 글쓰기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글에 대한 수정도 진행하는데, 모둠별로 상호 피드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교수자가 수정의 방안과 기준을 제시한다. 완성된 원고를 발표를 통해서 마무리하면서 동료 간의 평가, 교수자의 평가를 통해서 자신이 쓴 글쓰기의 완성을 시도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교수-학습 과정의 요약으로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교수-학습 과정안 요약

주차	수업의 목표	수업의 내용
1주	글쓰기 원론: 수업의 필요성 및 의의	(1)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글쓰기의 사례 제시 (2)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글쓰기의 접근 방법
2주	글쓰기의 일반론: 글쓰기 절차	(1) 글쓰기의 전반적인 절차와 방법 (2) 글쓰기 개요의 작성 (3) 글쓰기의 다양한 수정 방법
3주	서울 중구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의 개관(1)	모둠 작업 및 발표: 1팀
4주	서울 중구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의 개관(2)	모둠 작업 및 발표: 2팀
5주	서울 중구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의 개관(3)	모둠 작업 및 발표: 3팀
6주	서울 중구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의 개관(4)	모둠 작업 및 발표: 4팀
7주	서울 중구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의 개관(5)	모둠 작업 및 발표: 5팀
8주	팀별 지역 답사 및 글쓰기	모둠 발표 및 피드백: 1팀
9주	팀별 지역 답사 및 글쓰기	모둠 발표 및 피드백: 2팀
10주	팀별 지역 답사 및 글쓰기	모둠 발표 및 피드백: 3팀
11주	팀별 지역 답사 및 글쓰기	모둠 발표 및 피드백: 4팀
12주	팀별 지역 답사 및 글쓰기	모둠 발표 및 피드백: 5팀
13주	전문가 초청 글쓰기 멘토링	해당 분야 전문가 초청 특강
14주	결과 보고 및 마무리(1)	결과 보고 및 마무리
15주	결과 보고 및 마무리(2)	결과 보고 및 마무리

3.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글쓰기 수업의 결과와 보완 방향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서울 중구 지역의 지역적 특성, 문화적 특성, 글쓰기 소재 및 글쓰기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고 한 편의 글로 완성할 수 있었다.

서울시 중구 지역은 행정 구역상 종로구, 서대문구, 성동구, 용산구와 인접해 있다. 따라서 다른 서울의 자치구와는 달리 범위가 지역의 범위가 넓고, 각 지역마다 다양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중구에서 구분해 놓은 행정구역을 본다면 중구를 크게 (1) 서울역 권역, (2) 정동 권역, (3) 청계천 권역, (4) 을지로-명동 권역, (5) 필동 및 남산 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

서울역 권역은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서울역을 중심으로, 용산구와 접경해 있는 지역에서의 일제강점기의 적산가옥과 같은 근대 문화유산, 남대문과 남대문시장 주변의 생활문화유산, 서울역 고가도로를 활용한 ‘서울로 7017’과 같은 문화유산이 존재한다. 수강생들은 1차적으로 이런 지역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에 주목하여, 이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글쓰기를 진행했다.

먼저, 정동 권역을 선택한 모둠의 경우에는 대한제국 시기의 만들어진 역사문화유산, 배재학당이나 이화여고와 같은 근대교육시설, 정동 외국인 거주지에 설치되었던 다양한 문화유산 등이 존재한다. 예를 들자면 덕수궁, 정동길, 구 러시아공사관, 구 프랑스 공사관 터, 손탁호텔 터, 이화여고, 정동제일교회, 배재학당 기념관, 성공회, 구세군 협회와 같은 것⁹들을 다양하게 탐색하고 글로 집필했다.

다음, 청계천과 을지로-명동 권역을 선택한 모둠의 경우에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다양한 대중문화에 주목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글쓰기를 진행했다. 예를 들어, 청계천 주변에 있었던 조선시대의 유물이나 유적,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대표적인 상징인 세운상가, 을지로 일대의 인쇄골목, 을지로 일대에 남아 있는 다양한 오래된 가게(노포), 명동성당, 한국 문화의 1번지 명동 등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이곳에서 활발히 선정하고 있는 미래문화유산지정사업과 연계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다양한 글쓰기 방안을 모색했다.

마지막으로 필동과 남산 권역을 선택한 모둠에 경우에는 필동 지역에 남아있는 적산가옥, 그리고 남산에 산재해 있는 각종 기념 문화유산탑과 기념비 등에 주목하여 글쓰기를 진행했

9 김정동 (2004). 고종황제가 사랑한 정동과 덕수궁. 서울: 발언. 5-15.

다. 예를 들자면 “3.1독립운동 기념탑, 유관순 열사 동상, 장충단공원, 남산골 한옥마을, 남산봉수대, N서울타워, 안중근 의사 기념탑, 백범광장, 만해 시비, 김소월 시비” 등이다. 아울러 이 지역에는 관우사당, 류성룡의 생가 터가 있는데 이와 연계하여 스토리 복원작업, 이와 연계된 글쓰기 과제를 제출했다.

이처럼 이 수업은 서울 중구의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고 지역에 산재한 각종 역사문화유적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둔 수업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에 대한 이해와 답사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정하고 이에 맞는 글쓰기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한편, 글쓰기는 조사나 대상의 초점화에만 관심을 두게 한 것이 아니라 현재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연계하도록 설계하도록 했다. 현재 진행되는 지역문화 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번호	사업명	사업내용
01	생활문화센터 지원	지역 주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주민들의 문화공간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사업
02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지역 주민과 생활문화동호회가 직접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일상적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축제 지원 사업
03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일상적인 만남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체 활동을 확산하고, 건강한 지역관계망을 형성하는 일체의 과정 사업
04	지역문화인력 지원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문화 관련 전공자 등 문화 인력이 지역문화 시설에서 실무자로 근무하며 문화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역문화 전문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는 일체의 사업
05	지역문화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주체적인 지역문화 인재를 발굴하고 역량 있는 지역문화 전문인력을 양성 사업
06	지역문화 활동가 지원	문화 활동가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현안과 문제를 찾아내고, 문화를 매개로 전국의 문화 활동가 관계망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혁신적인 실험·시도 기획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
07	문화이모작 마을문화 매개 인력 지원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 문화 매개 인력을 발굴·교육함. 지역 내 문화 사업 발굴과 주민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자생적 주민공동체 및 문화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사업
08	유휴공간 문화재생 지원	지역에서 기능을 잃고 방치되어 있는 유휴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생하여 지역의 상징적인 문화공간으로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09	지역문화 생태계구축 지원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사업은 지역별 수요자 중심의 자생적 생태계를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시설·공간·주민과 교육·양성·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
10	문화도시 지원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시문화를 만들고, 지역사회의 성장 동력으로서 고유한 도시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정 문화도시 지정제도를 지원하는 사업
11	지역문화콘텐츠	지역의 다양한 주제 간 협력을 통해 개성 있는 지역문화 콘텐츠를 발굴

	특성화 지원	개발하여,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
12	청춘마이크 지원	젊은 예술가들에게 '문화가 있는 날' 무대에 설 기회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꿈을 키우고 전문성을 가진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13	동동동 문화놀이터 지원	문화가 있는 날 전국의 유아 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사업
14	직장문화배달 지원	근로자 대상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15	지역문화 우리 지원	'문화가 있는 날' 지역 청년 문화예술 기획자들의 문화 활동 지원 사업
16	동네책방 문화 사랑방 지원	문화가 있는 날 동네책방에서 동네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주민참여형 문화 활동 사업
17	여가 친화기업 지원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지원·운영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

수강생들은 모둠 활동을 통해서 글쓰기를 진행하고, 다음으로 17개 영역에 걸쳐 지역문화 사업과 자신의 글쓰기와 연계하여 지역전문가가 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 데 집중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고려했다. 첫째, 수강생들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지역문화자원, 지역문화사원을 제시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전공을 불문하고 글쓰기의 기본 능력 배양, 지역전문가로서의 가능성 토대를 구축하도록 했다. 둘째, 수강생들의 글이 단순히 문화재 해설에만 그치지 않도록 했다. 스스로 지역문화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선별하여 모둠별 활동, 개인의 성찰을 통해서 이 주제가 의미 있는 글쓰기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연구 대상에는 지역 내의 일반 인터뷰나 설문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살아있는 글쓰기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셋째, 학습자들이 완성도 있는 글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은 수업에서 교수자의 강의, 개별 활동, 모둠활동, 전문가초청 강의 및 보정을 통해서 자신의 글이 완성도 높은 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역전문가, 지역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수강생들의 학습 및 협력 활동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글쓰기 수업의 결과와 보완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강생들의 글쓰기 능력, 무엇보다 글쓰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글쓰기 수업의 진행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생활 주변의 모든 것들이 글쓰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생활 터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모둠활동, 개인별 글쓰기 능력의 배양을 위해서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수업의 결과는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로 나타나게 되었다. 중간/기말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되는 만족도 결과를 통해서, 학업 만족도는 모두 4.5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수업의 핵심은 학생들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대상에 대한 탐색, 학생들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학업 설계, 학생들 스스로 진행하는 주도적인 수업의 진행, 그리고 답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활동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실제성 높은 글쓰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 글쓰기 수업의 방향과 운영은 이와 유사한 수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 활동과의 연계 방안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글쓰기 교육의 의의는 글쓰기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전반의 생태계를 함께 고찰해야 드러날 수 있다. 현재 학교 교육은 정규 교과 시간 중심의 교육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을 비롯한 비교과 활동이 늘어나고 있으며 글쓰기는 교과, 비교과 시간 모두에서 중요한 학습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 활동은 교사 주도 중심의 교과 시간과 달리 학습자 스스로 지식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며 학교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의 연계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25개구 전 지역에서 혁신교육지구를 추진하고 ‘마을결합형 교육’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청소년들의 돌봄이나 방과후활동으로 지역에 산재한 역사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¹⁰ 더불어, 서울시 중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청소년들의 돌봄 교실을 중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와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¹¹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지역에서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교육 내용은 2015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지역과 관련된 글쓰기, 지역의 문화유산 지도 만들기, 지역 주민들과의 인터뷰 및 세대 공감 사업, 지역 내의 마을길 만들기 와 같은 것들이다. 중구 지역 소재 학생들은 현재 자율 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의 영역에서 지역에 존재하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¹²

10 이용운 외 (2020). 서울의 마을교육. 서울: 살림터. 5-7.

11 이용운 외 (2020). 앞의 책. 213-214.

이 글에서 직접 관련이 있는 국어과 중등 교육과정의 경우, 교육과정에 의거하여¹³ 지역사회와 관련된 문학 활동, 지역사회의 현안이나 문제점 등에 대한 글쓰기와 토론 과정이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글에서 다룬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글쓰기 수업을 중등 교육과정에 적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시행해 볼 수 있다.

첫째, 이 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대학 교양 수업은 교과목 편성 취지나 강의자의 의도에 따라 강의 운영이 가능하나, 초 중등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을 기초로 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이 편성, 운영되므로 관련 교육 내용이 어떤 시간에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탐구하고 이를 토대로 글쓰기를 수행하는 수업은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 활동을 연계하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교과와 상호 보완적이며 학생들이 다양하고 풍부한 체험을 통해 앎을 실천으로 체득하게 하여 전인적 성장을 돕는 교육과정이다.¹⁴

교과는 주로 학문적 입장에서 학생들이 교과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습득한 지식을 직접 현실에 적용해 보는 기회는 많지 않다. 따라서 교과 시간에 배운 지식과 기능을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적용해 봄으로써 앎을 실천하는 경험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어 교과 시간에 학생들은 글쓰기의 본질과 원리 등을 이해하고 그 기능을 수행해 보는 경험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쓰기 수행은 교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의 경험이라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과목에는 ‘[12화작03-03] 탐구 과제를 조사하여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게 보고하는 글을 쓴다.’와 같은 성취기준이 있으나 이를 실제 국어 교과 시간에 적용하여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조사 보고서의 특성 및 작성 원리에 대한 국어 수업을 토대로 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실제 대상을 찾아 이를 탐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역사문화 자원을 이용한 글쓰기 수업은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을 연계하는 일종의 매개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김영순, 오영훈, 김미라 (2012).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20(2). 285-304. ; 임종현 (2020). 자유학기 활동의 정체성 및 교육 과정적 발전 방향 탐색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9). ; 임유나, 이수정 (2020). 2015 개정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0). ; 이수정 (2020).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편성 운영되는 다양한 교육 활동의 실태 및 개선 방향 탐색. 교육연구논총, 41(2).

13 교육부 (2015). 앞의 책. 69-97.

14 교육부 (2017). 2015 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해설: 중학교. 서울: 태백종합인쇄공사.

둘째, 지역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글쓰기 수업은 주제 탐구형 수업의 하나로 프로젝트 문제해결 방식(PBL)의 수업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국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러티브로서 기능하도록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의 연계는 맥락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과의 지식과 기능을 창의적 체험활동의 실천과 경험으로 의미있게 연계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를 단단히 엮어주는 매개체로서 교육적 내러티브가 요구된다.¹⁵ 내러티브는 실재와 사건들이 지니는 의미를 형성하고 나아가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삶과 연계시키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내러티브의 종류는 다양하나 글쓰기를 기반으로 할 때, 지역 사회의 문화, 역사적 자원은 교과 연계의 훌륭한 내러티브가 될 수 있다. 이는 특히 창의주제활동에 적합한데, 학생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제를 선택하여 탐구를 진행하고 탐구 주제 선정과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다양한 내러티브가 작동될 수 있다. D대학에서 이루어진 서울시 중구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조선시대와 근대 문화 유산을 중심으로 한 역사 초점 글쓰기도 가능하며 ‘서울로 7017’을 중심으로 도시 재생과 관련된 글쓰기도 가능할 것이다. 학생들은 지역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흥미를 끄는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조사하여 글을 쓸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교과 시간에 배운 기존의 지식과 기능을 토대로 실제 경험(답사)이나 학습을 통해 얻게 된 새로운 지식을 자신만의 내러티브로 구성하고 전달하는 경험을 거치면서 학습의 목표와 목적을 보다 분명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등 교육과정에서는 쓰기 학습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 교양 글쓰기 프로그램은 실제성이 강하지만 ‘쓰기 자체’에 대한 학습의 성격을 강조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교육의 목표와 관련되는 것으로 대학 교양 교육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대학생들의 교양 교육이 핵심이므로 쓰기의 절차나 방법과 같은 기능 교육보다는 쓰기라는 행위를 통한 지역에 대한 이해에 초점이 있다. 그러나 중등 교육과정에서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이라는 콘텐츠를 활용하여 주제 탐구형 쓰기의 방법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글에서 소개된 글쓰기 과정의 1~2주차에 해당하는 계획하기 단계를 보다 강화하여 확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단계는 주로 국어 교과 시간에 배운 정보 전달 글쓰기와 성찰적, 비평적 글쓰기의 개념과 방법을 쓰기 주제인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 주제와 관련된 학습 요소를 고등학교 일반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문 교육과정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5 이지은 (2019). 창의적 체험활동과 교과 교육과정의 연계도구로서 내러티브. 내러티브와교육연구, 7(2).

[12화작03-03] 탐구 과제를 조사하여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게 보고하는 글을 쓴다.

[12화작03-06] 현안을 분석하여 쟁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담은 건의하는 글을 쓴다.

[12화작03-09] 일상의 체험을 기록하는 습관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을 쓴다.

이러한 성취기준들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므로 교사는 실제 다양한 쓰기 교육 내용이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모둠 논의 결과 글의 성격은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소개하는 글이 될 수도 있으며, 지역의 현안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글을 쓸 수도 있다. 즉 교과 시간에 학습한 쓰기의 방법이 실제 주제 탐구형 쓰기 실습에 유기적으로 연관되도록 쓰기 과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 과정에서 관련 주제에 대한 글을 미리 써 봄으로써 실제 답사나 전문가 인터뷰 등의 절차가 글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도록 유도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중등학교에서 글쓰기는 교실 범위 내에서 자료 수집을 거쳐 글을 쓰게 되는데,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면 실제 답사나 전문가를 만나 현실의 생생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제에 대한 지식이나 인식을 확장할 수 있으며, 글쓰기의 흥미도 얻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교실에서 문헌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기반으로 쓴 글과 실제 현장에서 얻은 자료를 기반으로 쓴 글을 비교해 봄으로써 글쓰기의 내용 생성 방법의 중요성에 대해 학습해 볼 수 있다.

학생들이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글을 쓰는 연습이나 교사의 피드백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생 스스로 본인이 쓰고 싶은 글을 열심히 써 보는 경험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교사의 지시에 따라 과제로 글을 쓰는 것보다는 실제 체험을 통해 진정한 독자를 대상으로 글을 쓸 때, 쓰기의 흥미도 높아지고 더욱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이 글에서 제안한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글쓰기는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높이면서 다양한 지역 단위 사업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쓰기의 실제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통해 지역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을 부여함으로써 글쓰기의 본질적 기능을 이해하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마무리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은 교육의 목표나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연계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초·중등 교육에서 배운 지식과 기능이 대학 강의를 수강하는 데 자연스럽게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학생들에게 그러한 지식의 전이나 기능 적용은 쉽게 일어나기 어렵다. 이는 실제 수행이 강조되는 쓰기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문제는 중등교육과 대학 교육의 초점이 달라서이기도 하지만 중등교육이나 대학 교육의 담당자들이 학생들의 지식이나 사고 발달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적 처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대학 교양 교육에서는 대학생들이 초·중등 과정에서 어떤 쓰기 교육을 받았는지 면밀하게 고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쓰기 교육을 실시하거나 쓰기 과제를 부여한다. 반대로 중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나아가 학문 또는 직업 세계에서 실제로 어떤 글을 주로 쓰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대비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쓰기 교육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초·중등 교육에서 쓰기의 본질과 기능, 원리 등을 학습한 후, 대학에서는 교양이나 전공 분야의 전문적 글쓰기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 두 과정 사이에 쓰기의 전이(transfer)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중등학교의 쓰기 교육과 대학 글쓰기에는 많은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중등학교에서 글쓰기 교육은 쓰기의 방법적 지식이나 절차 등과 관련한 이론적 학습을 기반으로 이를 적용해 보는 기본적인 쓰기 수행이 강조되는 반면, 대학에서는 인문 교양 또는 전공 학문 탐구 등의 도구로서의 글쓰기가 강조된다. 이 때문에 대학생들은 자신들이 고등학교 때 익힌 글쓰기의 기초 개념이나 방법을 대학 글쓰기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대학 교양 글쓰기에서 중등학교의 글쓰기 이론과 기능의 습득 여부를 자세히 파악하고 이를 전공 글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적 처치를 마련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중등 쓰기 교육에서 쓰기의 실제성이나 탐구성 등을 강화하여 대학에서의 글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쓰기 수행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후자의 방안으로 대학 교양 글쓰기의 방안을 중등학교에서 시범 적용해 볼 수 있는 교육 방안을 탐색하였다. 즉 중등 교육과정에서 교과 시간에 배운 쓰기 지식과 원리를 적용하여 실제 글을 써 보는 훈련과 연습의 기회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중등 작문 교육의 실제성을 강화하는 한 방안으로 대학 교양 글쓰기 프로그램

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실제 서울 중구에 소재한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글쓰기 수업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중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 사회문화적 배경이 강조된 쓰기 수업을 중등학교에 적용하기 위한 지도 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사회문화적 배경이 강조된 글쓰기 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교과 시간에 배운 쓰기의 방법과 원리를 실제 학교 밖의 쓰기 주제에 적용하여 글쓰기를 수행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수업은 프로젝트 문제해결 수업(PBL)으로 진행함으로써 지역이나 문화, 역사, 시사 현안, 진로 등의 주제를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는 내러티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쓰기 학습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여 교과 시간에 학습한 교육 내용과 실제 쓰기 과정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쓰기는 자신의 삶을 성찰함으로써 자아를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면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중등 교육과정에서의 쓰기 교육은 쓰기의 실제성이 미흡하여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글쓰기 교육은 학생들이 삶의 토대인 지역을 재발견하고 지역의 현안이나 문제해결에 글쓰기를 통해 참여함으로써 쓰기의 역할이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대학에서의 다양한 프로젝트형 글쓰기와도 연계되어 쓰기 능력 단계적 발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Kim, Yun-kyung (2016). A Case Study about the Education of Practical Writing. *The Korean Journal of Literacy Research*, 17. 11-32.
- Kwon, Tae-hyun (2012). A Study on the Introspective Education Effect of Literary Therapeutic Writing Program. *Journal of Literary Therapy*, 22.
- Kwon, Tae-hyun (2017). Alternative Strategy of Genre based Writing Education. *Korean Writing Study*, 32.
- Lee, Mi-sook (2015). A Study of the Direction for the Progress of Creative-experiential Activitie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JLCCI)*, 15(10).
- Ministry of Education (2015). Curriculum for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ies (including safe living). Seoul: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 (2017). 2015 Revised Curriculum Creative Experience Activity Commentary: High School. Seoul: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 (2017). 2015 Revised Curriculum Creative Experience Activity Commentary: Middle School. Seoul: Ministry of Education.
- Seoul Museum of History (2012). *Myeongdong Story*. Seoul: Seoul Museum of History.
- Yi, Ji-eun (2019). Narrative as an Integrated tool of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ies and Subject Curriculum. *Journal of Narrative and Educational Research*, 7(2).
- Yoo, Choon-dong (2020).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After-school Classes for Foreign Students Using Local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 Focusing on the Cheonan/Asan Area. *The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1.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

권태현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조교수

한국어 요약

연구 목적 이 글은 대학에서 수행된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글쓰기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중등교육과정 창의적 체험 활동 과정에서의 글쓰기 교육에 연계하는 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의 하나로, 교과 내 다른 영역이나 다른 교과 학습과의 연계, 비교과 활동이나 학교 밖 쓰기 활동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 글쓰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취지 및 현재 학교 현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글쓰기 교수법을 제안하였다.

결론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글쓰기는 글쓰기 교육이 교실 수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상임을 인식하고, 쓰기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어 지역 역사문화자원, 창의적 체험 활동, 창의적 글쓰기, 글쓰기 지도 및 교수법

이 논문은 2024년 11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11월 25일부터 2024년 12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2월 2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